

광주~나주 경전선 내년 착공... 혁신도시에 '첫 전철역'

광주송정~순천 간 단선 전철화...에타 통과 5년만에 주요 노선 확정 2조1366억 투입 2030년 개통...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경전선 신선' 노선과 첫 전철역 입지가 확정됐다. 나주시는 '광주송정~순천~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5년 만에 주요 구간 노선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한 창이다. 이 중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121.5km는 모두 5개 공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공구는 '광주송정~나주 다도' 구간으로 쌍용건설이 내년 5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1공구 총연장 45.7km 중 '옛 나주역~혁신도시~다도면 방산리'를 잇는 신선 구간 18.4km 중간 지점인 금천면 갈산마을 인근에 혁신도시 첫 전철역이 들어선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121.5km에 2조 1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공되면 비전철 단선철도 노선인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시속 250km의 'KTX-이음' 6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순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2시간 16

분에서 43분으로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5시간 45분 걸리던 광주역~부산(부전역)까지는 2시간 21분으로 3시간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전선 전철 개통 예상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엔 나주혁신도시역에서 열차를 타면 2시간 대에 부산 도착이 가능해져 영·호남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나주는 경전선 전철 경유에 이어 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추진

된다. 현재 최종 노선 확정을 위해 광주시·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안'을 제출해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인근에 경전선 역사가 들어서면 산·학·연 클러스터, 에너지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교류 확대에 지역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영산강 정원 '벤치 기부 프로젝트' 대성공

40여명 동참...43개 설치 완료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슬로건으로 진행한 '영산강 정원 벤치(긴 의자) 기부 프로젝트'가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주시는 지난 9월부터 추진한 '벤치 기부 프로젝트'(Give us a bench!)를 통해 영산강 정원에 총 43개의 벤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호수 연수당시 현지 시민들의 벤치 기부 문화를 접한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프로젝트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40명이 기부에 참여해 당초 목표한 벤치 43개 설치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나주시는 기부자의 약식 프로필을 벤치에 새겨 알리고 있으며 벤치 설치 금액의 60%는 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직접 기품도 증명할 예정이다. 벤치 외에 각종 정원 자재 기부도 이어졌다. 10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영산강 정원에 설치된 벤치.

월 초 관내 업체 2곳에서 '커피박' (枵-찌꺼기) 재활용 수거함과 벤치·테이블 세트, 탄소 저감과 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이끼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식품 해썹 전문인력 교육

24명 대상 법령·정책 등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최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식품 해썹(HACCP) 전문인력 24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립대학교가 주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교육은 한국식품기술사협회 HACCP 교육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및 광주·전남 식품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HACCP 법령 및 정책 ▲HACCP 심사 주요 지적사항 ▲선형요건 관리 ▲HACCP 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 참여한 업체 담당자는 "그동안 매년 개선되는 평가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썹 교육과



같이 매년 수료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관내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과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버섯 및 진균류 자원을 비롯한 식품·바이오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첨단기술 도입 교통안전 '업그레이드'

교차로 좌회전 감응신호·차선이탈경보장치 등 설치 지원

강진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성전면 신봉교차로와 밤재교차로에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구간에서 차량이 대기하면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좌회전 신호

가 들어와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호 위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이 적용된 신봉교차로와 밤재교차로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던 곳으로 교통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운전자 지원도 눈에 띈다. 강진군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를 지원하며,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명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음을 통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이재이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좌회전 감응신호와 고령운전자 지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군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차량도 광주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전남교육청 지원 영화, 내일 화순서 시사회

'열아홉 섬진강'·'푸른바람'...대안·작은학교 미래 모색·탐구

전남교육청이 제작·지원한 '열아홉 섬진강', '푸른바람' 영화 시사회가 4일 화순에서 열렸다. 박기복 원스톱 영화학교는 4일 오후 5시 화순군 하나울 만연회에서 '열아홉 섬진강'과 '푸른바람' 작품 무료 시사회를 연다고 밝혔다. 두 편의 영화는 대안학교와 작은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모색하고 활로를 찾아가는 영화 교육 과정으로, '박기복 원스톱 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박치기 감독의 다큐멘터리 뮤직 비디오 영화인 '푸른바람'은 전교생이 15명인 화순정봉초등학교 학생들의 매력적인 학교생활을 담아 낙후한 농촌에 대한 편견을 깬다. '열아홉 섬진강'은 섬진강 발원지를 찾아 떠나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드벤처 로드무비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의 불안한 미래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성장 영화다. 전남 지역의 작은학교 16곳이 19개 작품을 출품, 성황리에 마친 이번 제1회 영상제는 전남도의



유일한 특성화 사업이다. 박기복 감독은 "영화수업은 인공지능·가상세계·미디어 등 미래 기술 문명을 결합한 완성체"라며 "내년 3월부터 일부 과목이 AID지필교과서 수업으로 전환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영화와 영상의 이해가 선행된다면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사고와 공부의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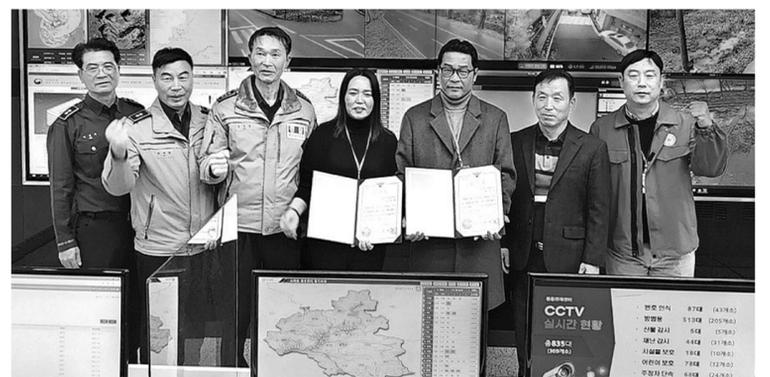
담양 딸기, 유럽·아프리카서 로열티 받는다

해외 재배 업무협약...네덜란드·프랑스 등 모종 공급

담양군은 최근 네덜란드 플레보베리, 프랑스 앙지에 등과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담양군은 딸기 모종을 유럽·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에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네덜란드와는 기존 협약에 이은 연장 협약을 맺어 담양 육성 딸기의 품종 유지와 신품종 딸기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 앙지에 지역에서는 2025년부터 현지에

서 담양 딸기 모종을 공급받아 육묘를 진행해 모종을 유럽과 아프리카로 공급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키운 모종은 블랙블립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 농장에 공급된다. 우리나라 모종으로 육묘한 모종이 판매되는 만큼 담양군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 군수는 "프리미엄 담양 딸기를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담양 관제센터, 지체장애인 30분만에 구조



24시간 369개소 835대 모니터링

담양군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명이 실종 지체장애인을 30분 만에 찾아 담양경찰서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진) 관제요원들은 지난날 20일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 30분 만에 실종 지체장애인을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담양군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9개소에 835대 CCTV를 모니터링하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성군, 도민체전 성화 봉송 아이디어 공모

장성군이 내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전남도민체전)의 성화 봉송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최우수상 50만원 등 상금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 특색 반영, 독창성, 파급효과,

완성도,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